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체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위식도역류 극복하기

과식은 금물… 잠자기 3시간 전 식사 마쳐야

직장인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속쓰림을 겪는다.

'위식도역류질환'이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주로 가슴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은 8~90년대 1~2%에서, 90년대 초 5%, 99년 7%, 그리고 2006년 8%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수는 2001년 49만명에서 2009년 255만명으로 최근 9년간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위식도접합부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정상적으로 안정시에 일정한 틀을 유지해 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항역류장벽의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에서의 점막파괴(미란)를 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들로는 당뇨, 술, 흡연, 비만, 임신, 커피, 탄산음료, 뷔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머스타드, 아스파린 등이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내시경상 이상(미란)이 있는 미란성과 이상이 없는 비미란성으로 나뉘며, 이중 비미란성이 60%로 다수를 차지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남자 환자들은 '신물이 흘러온다' '속이 쓰리다' '식도가 화끈거린다' 등이 있고, 여자 환자들은 '속이 답답하다' '입이 굉장히 쓰다' '신물이 올라온다' '속이 쓰리다' 등의 증상이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중 진행적인 증상, 즉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로 흉부작열감과 역류 증상을 들 수 있다.

흉부 작열감이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인데 영어로는 heartburn이다. 즉 심장이 탄다는 뜻입니다. 흉골 뒤쪽 감정이 타는 듯이 느껴지면서



류종선 소화기내과 교수가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속쓰림에 수면장애까지… 9년새 5배 증가

재발 75%… 생활습관·약물치료 병행해야

오복 가슴부터 복으로 증상이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 누우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재산제 등에 의해 증상이 완화된다.

◇협심증과 유수한 통증=앞서 말한 전형적인 증상외에도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에는 수면 무호흡, 기침, 후두염, 인두염, 성대육아증, 비심인성 흉통, 증여 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 중 중요한 것은 비심인성 흉통과 만성 기침인데 우선 비심인성 흉통은 일반인들이 잘 아는 협심증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유사하다. 흉골 아래부터 타는 듯 한 통증이 발생해 팔로 전파되기 때문에 협심증과 구별이 어려워 심장내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위식도역류질환에 의한 경우는 식사 후에 통증이 악화되고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협심증보다 증상이 오래 지속돼 심한 경우는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거나

제3차례 복용후에 호전된다. 그러나 협심증은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흉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비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만성 기침은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 만성 기침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에도 약 14%~23%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만성 기침의 원인 중 10%~20%가 위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으로 3주 이상 원인 미상의 기침이 지속할 경우는 내시경 등의 검사로 위식도 역류 질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위식도 역류 질환 중 상당 부분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생활습관은 개인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위험의 발

생인자이지만 체중 감량만 한다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약물치료를

료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베개를 높인다고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고 대부분의 역류는 식사 후에 발생하므로 수면과 식사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역류 기전에 작용하므로 권유되지 않지만, 고지방 식이와 저지방 식이 간에 역류 차이가 없으므로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과식하지 않고 자기 전에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위산분비억제 치료이다. 위산분비억제제로서 프로토론펌프억제제(PPI)와 H2수용체拮抗제를 비교한 연구에서, 프로토론펌프억제제 투여 군에서 투여 전에 비해 의미있게 식도 내 산도가 4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식도역류질환의 합병증으로는 식도협착, 바렛식도, 식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중 상당 부분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생활습관은 개인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

소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위험의 발

생인자이지만 체중 감량만 한다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약물치료를

제3차례 복용후에 호전된다.

제3차례 복용후에 호전된다.